

# 한국 이상향의 성격과 공간적 특징 -청학동을 사례로-\*

최원석\*\*

## Spatial Characters of Korean Cheonghak-dong Utopia\*

Won Suk Choi\*\*

**요약** : 한국에서 청학동은 전통시대 이상향의 원형이었다. 청학동을 통시적으로 개관해 보면 공간적인 변이와 장소성의 쇄신 현상이 나타난다. 청학동은 늦어도 고려 후기에 지리산 화개동 인근에 최초로 비정되었고, 조선 초기에는 한양의 남산에도 청학동이 나타나며, 조선 중·후기에는 최초 비정지의 인근 지역 및 지방 명승지로의 분포 양상이 보인다. 근대에 이르러 청학동 지명의 전국적인 분포 현상이 나타나고, 현대에는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청학동으로 고착되었다. 청학동 이상향의 장소정체성은 선경지에서 주거촌과 관광지로 쇄신·전개되었다.

**주요어** : 지리산, 청학동, 이상향, 장소성, 공간적 변이

**Abstract** : Cheonghak-dong is a prototype of Korean traditional utopia. Cheonghak-dong Utopia assumed at Jiri Mountain in the late of Goryeo period, and the place name of Cheonghak-dong could be found at the Royal capital(Hanyang) in early Joseon Dynasty, and then it diffused to the outskirts of the original place and local area in the middle period of Joseon Dynasty, eventually it diffused to the nationwide in the modern times. Now, Cheonghak-dong was fixed at Mukgea village in Hadong-county officially. The placeness of Cheonghak-dong was changed from the fairyland to the human habitation and a sightseeing place.

**Key Words** : Jiri Mountain, Cheonghak-dong, utopia, placeness, spatial variation

### 1. 서론

흔히 중국의 이상향이라 하면 무릉도원을 떠올리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청학동은 전통시대 이상향의 원형이었다. 우리 민족이 꿈꾸었던 이상향은 청학동 외에도, 우복동(牛腹洞, 상주·청원·보은 접경지), 용화

동(龍華洞, 경북 상주), 이화동(梨花洞, 금강산), 산도동(山桃洞, 관동), 태평동(太平洞, 함경북도), 오복동(五福洞, 경상도), 회산동(檜山洞, 평안도), 식장산(食穢山, 충청도) 등 지역적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청학동은 전통시대 사람들이 소망하고 추구하였던 한국적 이상향의 전형이었다.

중국에서도 조선의 청학동은 유명했던 것으로 보인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KRF-2007-361-AM0015).

\*\*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인문학국 연구교수(H.K. Research Professor, Gyeongnam Cultural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wschoe@empal.com

다. 이규경(1788-?)이 『청학동변증설』에서, “청학동은 동방의 한 작은 골짜기에 불과하지만 천하에 유명하였다. 청(靑) 성조(聖祖)의 『연감류감(淵鑑類函)』에는 조선의 지리산에 청학동이 있다는 것이 실려 있다. …우리나라에 비경으로 이름난 것이 매우 많지만 청학동이 유독 세상에 이름났다.”<sup>1)</sup>고 한 것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청학동은 조선조에 이르러…은 세상에 회자되어 모르는 사람이 없고 가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sup>2)</sup>는 이규경의 기록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청학동은 사회계층 여하를 막론하고 영·호남 이상향의 대명사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근대에 이르러 청학동은 단지 영·호남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이상향의 상징이 되었는데, 오늘날 전국에 청학동이라는 행정지명이 40여 곳 넘게 분포하는 것도 이러한 정황을 잘 나타내어 준다.

그런데 청학동을 통시적으로 개관하면 다양한 공간적 변이가 나타나고 장소정체성도 다채로운 쇄신을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학동 이상향이라는 문화요소가 공간적으로 전파되는 역사적 과정에서, 시대적으로, 사상적으로 그 구성양식과 내용이 청학동의 경관에 달리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해당 시대의 사회집단이 시대사조와 문화배경에 따라 그들의 정체성과 이데올로기를 청학동에 달리 투영하여 장소성을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늦어도 고려 후기 전후부터 경남 하동의 불일폭포와 불일암 부근을 중심으로 비정된 청학동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유학자들에게 선경(仙境)이자 이상향의 상징적 장소였다. 조선 중·후기에는 원 청학동 인근의 의신, 덕평, 세석, 목계 등지에 민간인들이 취락을 이루어 청학동의 이상을 기대하고 또 실현하고자 하였다. 현대에 와서 청학동은 관 주도로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에 재구성되었고, 청학동의 장소이미지를 활용한 장소마케팅의 관광지로 개발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지리적 생활사에 있어서 이상향으로서의 청학동은 유학자들의 상징공간이고, 민간인들의 생활공간이며, 관광지로서 재구성된 문화공간이었다.

그동안 이상향에 관한 선행 연구는 지리학, 문학, 미학, 철학, 인류학, 역사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 축적이 있었다.<sup>3)</sup> 지리학 분야의 주요 관련 논문으로는 풍기읍의 정감록촌 형성과 이식산업에 관한 연구(오세창, 1984), 유토피아 지리학의 가능성을 탐색한 논문(신정엽, 1993), 유토피아적 공간의 변증법 및 범주화를 제시한 논문(최병두, 2000), 조선시대 유토피아의 양상과 그 지리적 특성을 탐구한 논문(정치영, 2005), 지리산 읽기: 유토피아적 도피처에서 근대적 국립공원으로의 변형(진중현, 2005) 등이 있다.

위 논문들은 지리학적인 시각과 접근으로 이상향에 대한 접근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다양한 해석적 방법을 제공하였는데 연구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한국 이상향의 원형성과 전형성을 갖추고 있는 청학동에 관해서는 정작 지리학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청학동이 고려 후기 이후 조선시대와 현대를 걸치면서 다양한 공간적 변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 주목한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전통시대 이상향의 전형적 모델인 청학동의 역사적인 전개양상을 통해, 한국의 유토피아 이상향의 성격과 공간적 특징은 무엇이며, 시대별 분포 변화와 공간적 변이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관해 탐구하고자 한다.

## 2. 한국 이상향의 공간적 성격과 특징

### 1) 이상향의 성격과 양상

역사상 인류가 추구했던 이상향의 양상은 조명하는 관점에 따라 다른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유형과 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가시적인 문화경관의 형성(實地性) 여부, 자연에 대한 인식과 태도, 시·공간 환경심리라는 지리적 측면에서 이상향들의 양상과 속성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문화경관의 형성을 수반하지 않는 허구적이고 비실지적(非實地的) 이상향은 종교적인 이상향들에서 잘 드러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성(과거 혹은 미래)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고, 장소정체성이 통시적으로

변이·쇄신되지 않는 속성을 지닌다. 기독교 창세기의 에덴동산이나 불교의 미타정토가 대표적인 비실지적 유토피아의 유형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비되는 것이 실제 문화경관으로 구축된 이상향으로 사회적 속성의 이상향들에서 잘 드러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공간성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고, 장소이미지나 장소정체성이 시대 내지는 사회조건에 따라 변이·쇄신되고 재구성된다. 예컨대, 미국에서 18-19세기에 성행하였던 유토피안 공동체들은天上 도시(the celestial city)를 현실의 삶에서 성취하고자 하였다(Porter and Lukermann, 1976, 201). 우리나라에서는 경주 불국토, 청학동(마을), 가평 판미동, 십승지 등이 가시적 경관으로 구축되었다.

또 다른 양상은 자연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차이에서 드러난다. 사회집단이 자연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지녔는가에 따라 이상향의 입지와 경관, 장소성, 생산 및 생활양식 등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동아시아와 서양의 이상향을 대조해보면 자연관과 공간적 태도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서양의 유토피아 의식을 보면 관념적이면서 자연회귀적인 성향과, 계획적이면서 인위적인 성향의 두 가지 상반된 패턴이 나타난다.<sup>4)</sup> 창세기의 에덴동산은 과거 회귀적인 낙원의 상징으로 전자를 대표하는데, 여기에는 “우리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서 돌아가기를 갈망한다. 우리는 더 이상 자연과 조화롭게 살 수 없다.”는 깊은 상실감이 반영되어 있다(Porter and Lukermann, 1976, 199). 후자의 대표적인 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 기독교에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the New Jerusalem of Revelation)은 기하학적으로 계획된 성(城)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므로써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토마스 모어(Thomas More)의 유토피아(Utopia, 1516)에서 섬은 기하학적인 도형 위에 설계된 추상적인 평면공간의 이상향으로(최영준, 1997, 102-105), 도시환경에서 이상사회나 국가를 구성함으로써 이상향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동아시아의 이상향은 현실 속에서 실천적이면서도 자연귀속적인 자연관과 공간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실천적이라는 말은 현실세계에서 이상적인 삶의 터전을 발견하거나 성취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태도는 불교의 타계적(他界的)인 서방정토사상과 미륵상생사상 마저도 현지정토나 미륵하생의 구현으로 변용시켜 전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연귀속적인 속성은, 서양의 이상향과 같이 자연과 격절된 인위적 환경의 창조 보다는 자연 상태에서 이상적 삶의 조건이 완비된 최적의 입지처 선택에 몰입하는 전통을 낳았다. 요컨대 서양에서는 에덴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기에 관념화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현실에서는 계획적이고 인위적인 이상향을 추구하게 된다면, 이에 반해 동아시아에서는 자연적 이상향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 실천하였다는데서 자연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별점을 찾을 수 있다.

이상향이라는 문화현상이 다양하게 창출되고 변이되는 연유는 인간의 시·공간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에서도 도출해 낼 수 있다. 사람들은 미지의 시간과 공간에 대해 심리적으로 어떠한 허상과 환상을 갖고 있다. 아득한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는 현재 혹은 지금과는 다를 것이라는 시간의 심리적 환영을 갖고, 전인미답의 깊은 산 속과 수평선 저 너머의 보이지 않는 섬은 여기와 다를 것이라는 공간의 심리적 환영을 갖는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막연한 환상 심리는 유토피아 관념을 유발하는 가장 근원적인 동기이자 구성 요소이며, 특히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유토피아의 형태에서는 더욱 그 환상성이 가중된다.

이런 맥락에서 유토피아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분류해 볼 때 시간적으로는 과거로 회귀하거나 미래(혹은 내세)를 추구하고, 공간적으로는 아무나 이를 수 없는 깊은 산간 혹은 아득히 보이지 않는 섬을 이상향으로 상상하고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시간적인 과거 회귀는 인도유폴피안 전통에서 강하게 드러나는데 황금시대와 에덴동산의 파라다이스가 대표적이다. 미래 지향의 경우는 서양 기독교의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이 있고, 동양에서는 불교의 내세적 미타정토, 한국에서는 동학 및 증산교의 후천개벽 세상이 대표적이다.

공간적인 지향은 동아시아의 전통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데, 깊은 산간의 선경 및 동천복지(洞天福地)를 이상향으로 환상하는 사례로 중국의 무릉도원이나 한국의 청학동이 대표적이다. 섬에 대한 유폴피아는 우리나라에서 이어도, 울도국(栗島國), 무인공

도(無人空島), 단구(丹邱), 의도(義島) 등이 나타나고 서양에서는 토마스 모어가 묘사했던 유토피아 섬이 있다.

## 2) 한국 이상향의 유형과 특징

전통시대에 한국인들에 의해 실제 또는 문학(설화나 소설)의 형태로 전개된 이상향의 일반적 유형과 그 지리적 특징을 고찰해 보면 시간적, 공간적, 사상적인 양상이 드러난다. 한국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유형의 이상향 중에 과거지향형은 찾기 어렵다. 미래지향형은 종교신앙 부문에서 보이는데, 전술하였듯이 불교적 미타정토, 동학 및 증산교의 후천개벽 세상이 대표적이다. 공간적 유형의 이상향은 대다수가 설화, 소설 등의 문학 장르에서 나타나지만 그 중 몇몇은 현실에 시도되었거나 구현된 실제적 이상향이다. 지형·지리적으로 동천복지형(洞天福地型)과 해도형(海島型)의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난다.<sup>5)</sup>

동천복지형은 전통시대에 중국과 한국에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이상향 지형의 유형으로, 일찍이 실학자 이규경은 청학동(지리산)을 비롯하여, 용화동(龍華洞, 경상북도 상주), 우복동(牛腹洞, 삼도 경계-상주·청주·보은 접경지),<sup>6)</sup> 소라동천(小羅洞天, 호서 내포) 등의 동천을 열거하여 변증(辨證)한 바 있고, 하렴지(霞斂地, 강원도 강릉), 남북나내동(南北羅乃洞, 함경북도 경성), 여진동(女眞洞, 함경북도 무산), 이화동(梨花洞, 강원도 회양 금강산), 회산동(檜山洞, 평안남도 성천), 석룡굴(石龍窟, 평안남도 영원), 오음동(烏音洞, 황해도 곡산), 회룡굴(回龍窟, 강원도 양양), 이산동(伊山洞, 강원도 강릉), 마간치(馬間峙, 강원도 영해) 등이 모두 예전의 청학동과 같다고 소개하였다.<sup>7)</sup>

그리고 한국의 고전 문학에서도 이화동(금강산), 산도원(山桃源, 춘천 麒麟倉 30리 밖 관동지방), 태평동(太平洞, 함경북도 갑산에서 동북으로 이틀거리), 오복동(五福洞, 경상도 상주), 식장산(충청도), 불곡(佛谷, 강원도 狼川 경계), 회룡굴(강원도 고성 영랑호- 양양 읍치에서 동남쪽으로 60-70리 거리) 등의 지역 이상향들이 나타난다.<sup>8)</sup> 청학동은 이상과 같은 지역형 동천복지형의 원형이자 전형의 위상을 차지한다.

이들 동천복지형 이상향의 도별 분포를 보면 강원도

가 6곳으로 가장 많고, 함경북도 3곳, 평안남도·경상북도·충청남도가 각 2곳, 경상남도·황해도가 각 1곳, 기타 삼도 경계가 1곳으로 나타나고, 경기도와 전라도는 한 곳도 없다(표 1). 이들 이상향들의 분포 양상은 한반도 지형에서 심산계곡이 발달한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해도형은 울도국, 무인공도, 단구(고성에서 3만 리 거리의 동해바다 섬), 의도(義島, 한국과 중국사이의 서해에 있는 섬), 이어도 등이 있는데,<sup>9)</sup> 모두 위치가 분명하지 않고 영해 밖에 있는 가상의 섬이다. 한국의 해도형 이상향은 자연적 존재를 상상한 것이지만 같은 섬이라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인조적 가상의 섬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사상적 유형은 신선사상 및 도가류의 선경, 풍수도참류의 십승지(十勝地), 불가류의 미타정토 및 미륵용화세계, 유가류의 대동사회(大同世),<sup>10)</sup> 근대 민족종교의 후천개벽세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2). 역사상에서 불가류의 정토세계는 신라시대에 경주의 불국토로 실천되었고,<sup>11)</sup> 선경 유형은 청학동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고려 후기에 본격적으로 추구되어 조선시대까지 면면히 이어졌으며, 조선 중·후기에는 풍수도참에 영향을 받은 승지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유가적 대동사회를 구현한 역사적 사례로는 조선시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후반까지 경기도 가평군의 조종천 상류에 실천된 판미동<sup>12)</sup>과 경기도 광주 인근의 미원촌

표 1. 전통시대(고려·조선) 동천복지형 이상향의 위치와 도별 분포

도별	동천복지	비고
경상(남)도	청학동	
경상(북)도	용화동, 오복동	
충청(남)도	소라동천, 식장산	
강원도	하렴지, 이화동, 회룡굴, 이산동, 산도원, 불곡	
황해도	오음동	
평안(남)도	회산동, 석룡굴	
함경(북)도	남북라내동, 여진동, 태평동	
기타	우복동	삼도 경계

표 2. 한국 전통시대에 실천된 이상향의 사상적 유형

항목	이상향	경주 불국토	청학동		경기도 가평 판미동	십승지
			(원) 청학동	의신, 덕평 등		
사상 유형	불교	*				
	선도		*			
	유학				*	
	풍수			*		*
	도참			*		*
시대		신라	고려 후기~조선	조선 중·후기	조선 후기	조선 중·후기

(薇源村)<sup>13)</sup> 등이 있었다.

이러한 각 이상향의 사상성은 해당 이상향이 형성된 시기의 사회이데올로기적인 배경과 맥락을 같이 한다. 신라 경주의 불국토 이상향은 당시의 정치사회적 불교 이데올로기가 바탕이 된 것이다. 고려 후기에서 조선에 걸친 청학동 선경 유형이나 조선 중·후기 풍수도참의 십승지 이상향은, 대내외적으로 혼란된 사회환경에서 기인된 지식인들의 은일(隱逸) 태도와, 사회적인 유민들의 증가 및 피난·보신지지를 추구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반영돼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판미동 이상향은 자치적인 유가적 향촌의 대동사회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시도였다.

### 3) 한국 이상향의 지리적 성격

이상과 같은 한국의 이상향들을 가시적 문화경관의 형성 및 자연관과 관련시켜 그 지리적 성격을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의 이상향 중에서 실지에서 실천되어 문화경관으로 구성된 것으로는 신라의 경주 불국토, 조선시대의 청학동(마을)·십승지·판미동 등이 있고, 그 밖의 것들은 신앙과 설화, 소설에서 드러나는 허구적 이상향들이다. 중국과 한국의 이상향은 서양의 그것과 비교하여 시간적인 지향성 보다는 공간적인 지향성이 강하고, 공간적이라도 서양의 이상향 문학은 천상 도시의 창조를 희구하지만(Porter and Lukermann, 1976, 199), 동아시아의 전통적 이상향은 지상의 동천(洞天)에서 순자연적(順自然的)인 삶의 태도를 지향한다.

중국만 하더라도 다양한 대동사회적 유토피아의 유형들이 나타나는 것에 비하여<sup>14)</sup> 한국의 이상향은 사회적 속성보다는 자연귀속의 지향성이 강하다. 한국의 이상향에서 나타나는 지형특징은 심산(深山)의 골(洞)이 지배적으로, 이러한 사실은 서양의 유토피아가 에덴동산의 평원이나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처럼 평지인 것과 분명한 지형적 차이를 나타낸다. 중국 이상향에서 보이는 지형패턴도 무릉도원을 대표로 하는 동천복지라는 점에서 한국과 같지만 옥야(沃野)·도광야(都廣野)<sup>15)</sup>, 평구(平丘)·차구(差丘)<sup>16)</sup>와 같이 들 혹은 언덕(野·丘) 관념도 드러나고 있어 일정하게 구별된다.

이상향의 속성에는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상적 주거지에 대한 가치관 및 태도가 투영되어 있다. 한국과 중국의 이상향에 동천복지형이 많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규경(1788-?)도 한국에 동천복지가 많은 것을 지형지세와 관련시켜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세는 험준하다. 산이 서리고 물이 휘돌아 양의 창자처럼 구불거리고 새라야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님이 없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동천복지가 많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무릉도원 같은 데가 한 두 곳이 아니다.”<sup>17)</sup>

동천복지형 이상향의 일반적 지형패턴은, 조선시대 가거지의 이상적인 취락입지 모형에서 준거가 되었던 풍수지리설의 명당형국과 유사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sup>18)</sup> 이것은 이상향의 지형형국에 끼친 동아시아 풍

수사상의 영향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중환(1690-1756)이 『택리지』에서 가져지의 지리적 조건을 언급한 바, 산곡에 입지하는 풍수적 명당의 지형조건은 동구가 닫힌 듯 좁고, 안으로 들이 넓게 펼쳐진 목 좁은 향아리 같은 분지형 지세로 요약할 수 있으며, 특히 수구(水口)가 잠기고 안쪽으로 들이 열리는 것이 명당취락의 필수적인 지형 요건이라 하였다. 이러한 지형패턴은 중국의 무릉도원이나 한국의 청학동을 막론하고 동천복지형 이상향의 지형 형태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환경심리학적으로, 동천이라는 지형경관상의 근원에는 무의식적 공간관념으로서 어미의 품속(자궁)이라는 상징성도 내포되어있다. 내 생명이 배태된 원초적인 장소인 어미의 자궁은 사람들의 집단무의식 속에 완벽하고도 이상적인 장소의 원형태로 인지된다. 전래의 무가에서 ‘울 업니 품속처럼 좋은 땅’이라고 명당·길지를 표현하는 것도 그러한 인식의 반영이고, 풍수사상에서 이상적인 장소를 대변하는 명당 혹은 혈의 지형지세적 형국은 어미의 자궁과 비슷한 형태를 경관 모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성회귀적인 특성은 우리 민족의 모든 땅에 대한 사고관념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의식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최창조 1990, 418). 이러한 현상에 관해 논자는 해석컨대, 인간의 의식에 자리 잡은 모성성에 유비(類比)된 상징심리가 동아시아적인 골짜기의 지형환경에 투영되어 동천복지형의 이상향 관념으로 外化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프레이저(Frazer, 1854-1941)가 말한 유사법칙(law of similarity)의 한 공간적 형태라고도 부를 수 있다.<sup>19)</sup>

동아시아의 명산 및 명산문화와 이상향의 밀접한 관련성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 이상향들은 삼신산이라는 신비적인 장소이미지와 결합되어 명산에 주로 분포하였다. 예를 들면 청학동이 지리산에 있고 이화동이 금강산에 있으며, 정감록의 십승지들도 태백산, 소백산, 속리산, 가야산, 지리산 등지의 명산권 내에 주로 분포한다. 이러한 특성은 서양 유토피아들의 지리적 위치가 주로 섬이나 도시적 환경을 지향한다는 것과는 변별성을 갖는다. 우리나라 전통시대의 이상향들이 명산에 주로 분포하는 사실은 동아시아 산악지형의 특성이 반영된 명산문화의 한 현상이다.

이상과 같은 이상향의 공간적 유형도 역사라는 시간의 좌표에서 이탈할 수는 없다. 전통시대 이상향의 전형인 동천 유형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유학자, 민간인 등이 은일과 피신을 목적으로 추구하였던 이상향의 형태라는 것이다. 신라시대에 왕실에서 주도하였던 경주의 불국토는 청학동과는 전혀 다른 지역 규모와 지형형태, 문화경관, 이데올로기를 보였다. 같은 조선시대라도 판미동처럼 유학에 뿌리를 둔 동족집단이 대동사회를 구성하였던 이상향도 청학동의 장소정체성과는 입지지형이나 사회형태, 문화경관 등 여러 측면에서 달랐다.

### 3. 청학동 이상향의 공간적 변이

오늘날 청학동이라고 하면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청학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역사상 청학동의 최초 비정지는 현 행정구역으로 볼 때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부근이었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청학동으로 추정되거나 주민들에 의해 간주된 장소는 악양 매계, 하동 의신·덕평, 세석평전, 하동 학동 등 다양한 공간적 변이가 나타난다(표 3). 급기야 조선시대 이후 청학동이라는 문화적 장소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총 45곳에 이르는 청학동이 존재해 하나의 일반지명으로 정착했다. 우리는 이러한 공간적 문화현상을 통해 청학동 문화요소의 역사지리적 전과 과정과 분포 특징을 고찰해 볼 수 있고, 그를 통한 공간적 범위의 설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청학동의 역사적 변화 양상 및 확산 경로를 문헌과 고지도, 현지조사 자료를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기원기 및 최초 비정지의 단계로, 당시의 청학동은 선경의 장소이미지를 지닌 상상의 설화공간이었다. 지리산에 청학동이라는 호칭과 장소이미지가 생겨난 최초의 시기는 확인할 수 없지만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고려 후기보다는 이전임은 분명하다. 문헌에 의하면, 고려 후기 이후로 구전에 의해 전승된 청학동의 비정지는 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와 용강리 특히 불일평

표 3. 청학동의 시·공간적 전개

현 행정구역	비정 위치	시기	출처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신흥사 부근까지 도달하였으나 찾지 못함	고려 후기(12-13세기)	이인로 破閑集
	불일암 부근	조선시대	김일손 頭流記行錄 조식 遊頭流錄 허목 智異山靑鶴洞記 등
하동군 악양면 매계리	악양현 북쪽 청학사 골짜기	조선 초기(15세기)	김종직 遊頭流錄
	매계	조선 후기(18-19세기)	이중환 東國山水錄 이공익 練藜室記述 김정호 大東地志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의신	조선 중·후기	현지자료 및 제보
	덕평	조선 후기	김택술 頭流山遊錄 현지 제보
산청군 시천면 세석평전	내세석(內細石)	19세기 전후	송병선 頭流山記 김택술 頭流山遊錄 정기 遊方丈山記 정덕영 方丈山遊行記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학동	20세기	정종업 遊頭流錄
	청학동	20세기 후반	

전·불일암·불일폭포 부근으로, 이후 이 비정지는 조선 후기 및 20세기 전반기까지도 지배적인 장소 권위를 가지고 문헌 및 고지도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그림 1-3)

최초 지리산의 청학동이 문헌에 등장한 것은 이인로(1152-1220)의 『파한집(破閑集)』으로 노인의 구전에 근거한 것이었다.<sup>20)</sup> 이에 따르면 이인로는 사전에 청학동에 대한 정보를 알고 청학동을 찾아 나섰고, 청학동의 위치를 제보해 준 현지 노인도 청학동 이야기가 전승되어 내려오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청학동의 존재는 고려 후기 이전부터 개경 왕도의 관료와 지식인들, 지리산 인근 지역의 지방토착민들에게 널리 퍼져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학동의 ‘청학’이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조선 중기 선조 때 조여적이 쓴 『청학집(靑鶴集)』이라고 있다. 이것은 한국 선가(仙家)의 도맥을 정리한 책으로, 여기에는 청학상인(靑鶴上人)이라는 선인(仙人)이 등장하고 만년에 청학동에 삶터를 정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러

한 사실로 보아도 청학동의 사상적 성향은 선도(仙道) 계통임에 분명하다. 또 지리산이 삼국 및 신라시기에 선도의 본향이었던 설을 고려하더라도<sup>21)</sup> 청학동의 시기적 기원이 고려 후기 보다는 훨씬 거슬러 올라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청학동에 최치원(857-?)을 가탁한 유적 및 설화가 다분히 전승되는 사실도, 조선조의 지식인들이나 민간인들은 청학동의 역사적 기원을 고려 후기 훨씬 이전으로 소급해 인식했다는 단서이다.<sup>22)</sup>

청학동의 1차 변화 단계는 조선 초기에 나타나는 지리적 현상으로서, 최초 비정지에서 인근지의 또 다른 비정 및 정치문화중심지(王都)로의 전파 단계이다. 근거리의 악양 매계가 청학동 비정지로 새로 부상하며, 원거리로 한양 도성의 목멱산(남산)에도 청학동이라는 지명이 발견된다. 한양 목멱산에 나타나는 청학동 명칭은 청학동 이상향의 문화요소가 수위(首位)의 행정위계를 지닌 중앙에 전파된, 계층적인 팽창전파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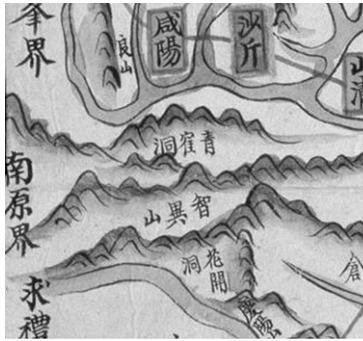


그림 1. 八道地圖(규장각, 古 4709-14)  
경상도 도엽의 청학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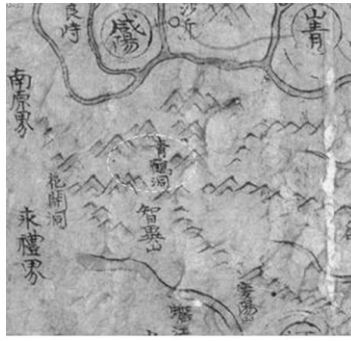


그림 2. 左海地圖(규장각, 圭 12229)  
경상도 도엽의 청학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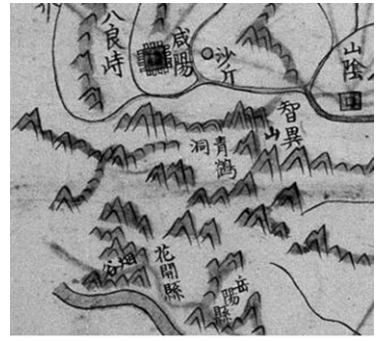


그림 3. 八道地圖(규장각, 古軸 4709-48)  
경상도 도엽의 청학동

청학동의 악양 매계설은 조선 초기에 김종직(1431-1492)의 『유두류록(遊頭流錄)』에서 등장한다. 이에 의하면, 청학동 최초 비정지의 위치에서 동편의 산줄기를 넘어 있는 악양현 북쪽의 청학사 골짜기가 청학동으로, 덕봉사 승려 해공(解空)의 말에 근거하여 비정된 기록이 있다.<sup>23)</sup> 이 악양 청학동 비정지는 조선 후기의 『동국산수록(東國山水錄)』·『연려실기술(鍊藜室記述)』, 『대동지지(大東地志)』등에 전승·유지되면서 악양면 매계(梅溪, 현 하동군 악양면 매계리 및 등촌리)로 구체화되어 지칭되었다.<sup>24)</sup> 김정호(1804?-1866?)는 “매계는 옛 이름이 청학동으로, 청학동은 지금에 매계라고 일컫는데 동쪽으로 진주와의 거리가 147리이다.”<sup>25)</sup>라고 지리적 위치를 분명하게 밝혔다. 현지답사 결과 원매계의 마을 주민들은 청학이(청학의 사투리)라고 하는 골을 청학동으로 지목하였고(그림 4), 매계



그림 4. 매계마을에서 본 청학동(청학이)

리의 노전마을에도 청학동이라는 지명과 언덕이 있다고 한다.<sup>26)</sup> 현재 청학골에는 전통적 촌락 경관이 형성되어 있다.

전술하였지만, 조선 초기의 한양 도성에서도 청학동이라는 지명이 나타난다. 세조 2년(1456)에 “세조가 청학동에 거동하였다”는 왕조실록의 관련 기사가 있고,<sup>27)</sup> 한양의 청학동에 대해 이규경(1788-?)은 “도성의 남촌 필동의 가장 깊은 곳에도 있다. 가운데로 한줄기 산골물이 흐르니 곧 남산의 산록이다. 곁에는 금위영 화약고가 있다.”는 상세한 변증도 하였다.<sup>28)</sup> 김정호의 『대동지지』(1863)에도 한양의 남산 남쪽(잠두산 북쪽)에 청학동이 있었다는 표기가 확인된다.<sup>29)</sup>

청학동의 2차 변화 단계는 조선 중·후기에 나타나는 지리적 현상으로서, 최초 비정지의 인근 지역으로 전염적인 팽창 전파와 지방 행정중심지 외곽의 명승지로 계층적인 팽창전파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단계는 청학동이 기존의 선경지라는 상상적 이상향에서, 민간인들이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상향을 실현하려는 주거촌으로 장소적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특징을 가진다.

조선 후기에 청학동 지역은 민간인들에 의해 취락이 형성되면서 거주공간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탐방하는 명소가 되었다. 18세기 이후 지리산지에는 많은 유민들이 정치사회적 혼란을 피해 들어와 살았기에,<sup>30)</sup> 청학동은 그들에게 강력한 장소 매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인들은 청학동을 찾아서 이상향임을 믿고 거주하였고 이에 따라



여러 경로의 전파양상이 벌어졌다. 최초 비정지 인근 지역으로서 북쪽으로 대성리 의신(17-18세기 추정)<sup>31)</sup> 및 덕평,<sup>32)</sup> 동쪽으로 청암면 학동,<sup>33)</sup> 동북쪽으로 세석평(전) 등지에 전파되었던 것이다.

조선조 임진왜란(1592-1598)과 병자호란(1636-1637)을 겪은 이후의 정치사회적 혼란과 민중 생활상의 피폐로 말미암아 지리산은 민중들의 피난처로서 인구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8세기 이후로는 지리산 골짜기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피화(避禍)하여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작년의 변란(1728년 무신란) 이후에 몸을 숨긴 사람들이 지리산 골짜기에 가득하다.”거나<sup>34)</sup> “작년(1784)년 시끄러운 소문(騷音)이 낭자하여 백성들이 다 투어 지리산 아래로 달아나 피신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는 표현<sup>35)</sup>이 이러한 사정을 잘 표현해 준다. 그 과정에서 특히 지리산 청학동에 관해 사회적으로 유포되었던 장소정보와 장소이미지는 유민(流民)들에게 강력한 매력을 끌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때를 같이하여 도참사상의 유행과 정감록 비결을 신봉하는 자들의 심승지 탐색은 청학동의 장소정체성에 또 한 차례의 질적인 쇄신과 구축을 유발시켰다. 이윽고 지리산 청학동이 명당, 길지의 승지로서 장소이미지가 형성됨과 아울러 외부로부터 이주민들이 전입하여 “만 사람이 살 수 있고 삼재가 들어오지 않는(萬人可活 三災不入)”<sup>36)</sup> 청학

동 승지촌(勝地村)이 형성되는 것이다.

한편, 지리산지 외곽의 원거리-한양을 중심으로 한 하위 지방행정중심지(邑治)의 주변부 및 외곽의 명승-에도 청학동 지명이 생겨난다. 이러한 사실은 18세기 중엽의 『해동지도』에 경기도 영평(그림 5)<sup>37)</sup>·적성<sup>38)</sup>과, 강원도의 강릉부<sup>39)</sup>(그림 6)에서, 『1872년 군현지도』에는 황해도 강령(康翎, 그림 7)에 청학동 지명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한양을 중심으로 한 지방행정중심지 인근에 청학동 지명이 나타나는 현상은, 청학동이 승경을 대변하는 지명으로 한양의 지식인과 중앙관료들에게 인지되면서 관원의 파견 등을 통해 하위 지방행정중심지 외곽의 명승지로 청학동 명칭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학동의 3차 변화 단계는 청학동에 대한 사회계층적 인지도의 전국화와 청학동 지명의 전국적인 전파를 특징으로 한다. 조선 후기에 와서 청학동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청학동을 찾는 사람들도 급격하게 증가하여 명소가 되었다. 이규경(1788-?)이, “청학동은...우리 조정에 이르러...은 세상에 회자되어 모르는 사람이 없고 가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언급이 이러한 정황을 말해준다.<sup>40)</sup>

특히 청학동이라는 행정지명의 전국적인 전파는 조선 후기에서 구한말을 거치면서 근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국에서 행정 동리를 포함하여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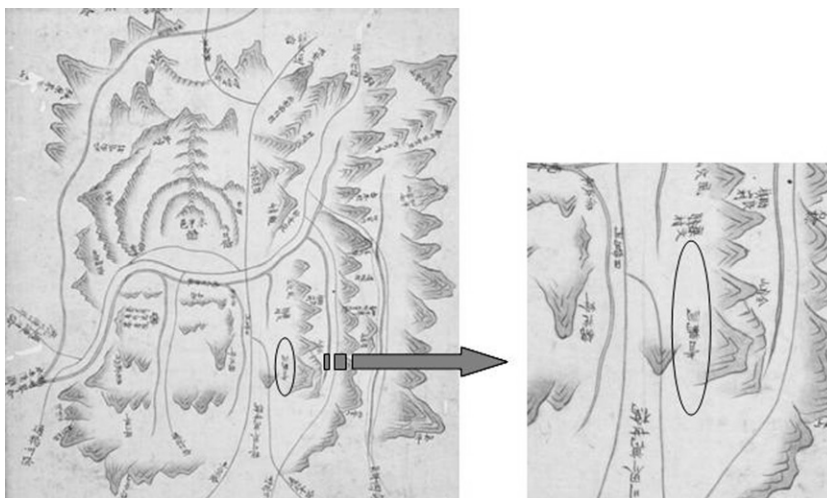


그림 5. 『해동지도』에 표기된 경기도 영평현 청학동과 확대도(오른쪽)



그림 6. 『해동지도』 강릉부 도엽에 표기된 청학동



그림 7. 『1872년 군현지도』 강령현 등산진 도엽의 청학동(점선표시)

학동 혹은 청학리의 지명을 조사하여보면 45 곳이 나타난다.<sup>41)</sup> 이러한 청학동 지명의 분포는 청학동의 이상향 및 승경지 관념이 전국으로 전파된 결과로 판단된다. 전국적인 청학동 지명분포를 살펴보면(표 4), 함경북도 8곳, 함경남도 3곳, 평안남도 2곳, 황해도 7곳, 강원도 6곳, 경기도 8곳,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에 각 1곳, 전라남도 2곳, 경상남도 7곳으로, 대체로 지리산권역 및 인근에 집중되어 있고, 다수가 중부 이북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변화 단계는 지리산 하동군 목계리 청학동이 관광지의 이미지로 정착되고 청학동으로 널리 인지되면서 사회대표성의 획득이라는 특징을 나타낸다. 20세기 후반에 와서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도인촌이 주민들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마을의 문화경관으로 인해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알려지고, 때마침 사회적인 문화관광의 붐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목계리 도인촌은 지리산지의 대표적 관광지의 하나로 떠올랐다. 그리하여 마침내 정부와 지방자치체에 의해 이곳이 청학동으로 지정되어 공식적으로 명명되고 또 사회적으로 널리 인지됨에 따라 청학동으로 고착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청학동의 시·공간적

전파양상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청학동 지명의 전국적인 분포 현상이 나타난다. 최초 청학동은 지리산에서 비정되어 기원하였으나 조선시대를 걸쳐 근대에 이르면서 전국적인 명승의 지명으로 전파되어 일반화되었다.

둘째, 청학동의 장소성이 선경지에서 주거촌 그리고 현재의 관광지로 전개되었다. 최초 청학동은 구전에 의해 전승되던 설화적인 이상향 공간이었으나 조선 후기인 18-19세기에 이르자 민간인들이 찾아 들어와서 거주하는 승지촌(勝地村)이 되었다. 현대에는 하동의 목계리 청학동이 장소성이 재구성된 대중문화의 관광지로 정착되었다.

셋째, 지리산 청학동들의 위치 분포를 살펴보면 최초 비정지에서부터 멀리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알 수 있다. 고려 후기를 전후로 하여 구전되어 오던 청학동에 대한 최초 비정지의 장소 매력 이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청학동의 공간적 전파 현상이 나타났다. 통시적인 분포 양상을 보면, 최초 지리산의 비정지에서 인접지로 전파하였고,<sup>43)</sup> 한양 왕도를 중심으로 하위 위

표 4. 전국 청학등(청학리) 지명의 분포와 도별 현황

도별(수효)	위치	지명	출처
咸鏡北道(8)	茂山郡 温泉里	靑鶴洞	조선향토대백과
	明川郡 黄谷里	靑鶴洞	조선향토대백과
	城津郡(金策市)	靑鶴洞	조선향토대백과 구한말지도
	甲山	靑鶴洞	구한말지도
	三水	靑鶴洞	구한말지도
	慶興郡	靑鶴洞	구한말지도
	金策市 細川里	청학마을	조선향토대백과
	金野郡 靑白里	靑鶴里	조선향토대백과
咸鏡南道(3)	安邊	靑鶴里	구한말지도
	永興郡(현 가야군)	靑鶴里	구한말지도
	豊山郡	靑鶴里	구한말지도
平安南道(2)	肅川郡 平和里	청학마을	조선향토대백과
	平壤市 中和郡 中和邑	靑鶴里	조선향토대백과
黄海道(7)	平山郡	靑鶴洞	조선향토대백과 구한말지도
	沙里院市 九龍里	靑鶴洞	조선향토대백과
	羅先市 下檜里	靑鶴洞	조선향토대백과
	開城市 開豊郡 解線里	靑鶴洞	조선향토대백과
	開城市 雲鶴一洞	靑鶴洞	조선향토대백과
	康翎	靑鶴洞	1872년 郡界地圖
	鳳山郡	靑鶴村	구한말지도
江原道(6)	東草市 靑鶴洞	靑鶴洞	地名總覽
	溟州郡 連谷面 三山里	靑鶴洞	地名總覽
	溟州郡 連谷面 三山里	內靑鶴洞	地名總覽
	江陵	靑鶴洞	海東地圖
	洗浦郡 三防里	청학마을	조선향토대백과
	高山郡	靑鶴里	조선향토대백과
京畿道(8)	仁川直轄市 연수구	靑鶴洞	地名總覽
	華城郡 烏山邑 靑鶴里	靑鶴洞	地名總覽
	坡州郡 積城面 馬智里	靑鶴洞	地名總覽
	南陽州郡 別內面	靑鶴里	地名總覽
	서울 中區 藝場洞	靑鶴洞	地名總覽
	永平	靑鶴洞	海東地圖, 東輿圖
	積城	靑鶴洞	海東地圖, 東輿圖
	烏山市 南村洞	靑鶴里	구한말지도
忠清北道(1)	鎭川郡 栢谷面 兩白里	靑鶴洞	地名總覽
忠清南道(1)	鎭山郡 鎭山邑 下玉里	靑鶴洞	地名總覽
全羅南道(2)	咸平郡 咸平邑 石城里	靑鶴洞	地名總覽
	莞島郡 古今面 靑龍里	靑鶴洞	地名總覽
慶尙南道(7)	釜山直轄市 影島區	靑鶴洞	地名總覽
	河東郡 靑岩面 黠溪里	靑鶴洞	地名總覽
	河東郡 岳陽面 梅鶴里	靑鶴洞	地名總覽
	河東郡 岳陽面 登村里	청학, 청학이골	地名總覽
	昌寧郡 昌寧邑 下里	靑鶴洞	地名總覽
	山淸郡 矢川面 內大里	靑鶴洞	地名總覽
	密陽郡 三浪津邑	靑鶴里	地名總覽

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시스템(<http://www.atlaskorea.org/historymap/IdxRoot.do>)에서 제공된 지명자료를 도별로 정리한 것임.<sup>42)</sup>



그림 8. 청학동의 시대별 분포 변화와 공간적 범위

주: 화살표의 굵기는 전파 양의 多少를 표현함.

바탕도 출처는 <http://local.daum.net/map/index.jsp>

계 행정중심지의 인근 및 외곽에 청학동 지명이 전파 되었으며, 다시 그곳들이 전파의 2차중심지가 되어서 하위 행정조직인 전국적인 동리로 전파되었다(그림 8).

다섯째, 지리산 청학동의 공간적 범위 설정이 가능하다. 청학동들의 공간적 분포를 통해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불일평전과 불일폭포 부근을 분포의 최초 비정지 혹은 중심지로 하고, 북쪽으로 의신과 학동, 동북쪽으로 세석평전과 덕평, 남쪽의 매계를 주변지로 하여 공간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그림 8).

#### 4. 요약 및 결론

이 글은 청학동을 사례로 한국의 유토피아 이상향의 성격과 공간적 특징은 무엇이며, 시대별 분포 변화와 그에 따른 공간적 변이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관해 탐구한 것이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의 이상향은 사회적 속성보다는 자연귀속의 지향성이 강하였으며, 동천복지형이 대표적으로 드러났다. 청학동은 동천복지형 이상향의 전형으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한국의 지리적 생활문화사에 있어서 청학동은 유학자들이 선망하였던 설화공간이자 상징공간이고, 민간계층이 마을을 이루고 거주하면서 풍수도참의 텍스트로 재현한 생활공간이며, 정부·지자체·주민·관광자본에 의해 재구성된 대중문화의 관광공간이었다.

청학동의 역사적인 변화 및 공간적인 확산 과정을 요약하면, 조선 초기에 최초 비정지에서 인근지 및 왕도로의 파급이 나타나고, 조선 중·후기에는 최초 비정지의 인근 지역 및 지방 읍치의 외곽 명승지로 확산되었다. 이후 근대에 이르러 사회계층적 인지도의 전국적 전파와 청학동 지명의 전국적인 분포가 나타난

다. 마침내 오늘날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청학동에 장소이미지가 고착되고 사회적 대표성이 획득되었다.

청학동의 시·공간적 변화양상의 특징은, 청학동 지명의 전국적인 분포 현상이 나타나고, 청학동의 장소성이 선경지에서 주거촌과 관광지로 전개되었으며, 지리산지 청학동들의 공간적 전파 과정에서 최초 비정지에 끌리는 관성이 보이고, 지리산 청학동의 공간적 범위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청학동은 역사과정에서 사회집단에 의한 공간적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몇 차례 장소정체성의 쇠퇴가 수반되었다. 고려시대부터 지리산지의 토착지방민, 승려 및 영호남 유학자들에 의해 선경·복지의 장소이미지로 인지되고 특히 조선조에 수많은 유학자들의 유산행(遊山行)으로 인해 경험되던 청학동은, 조선 중·후기에 들어 인근의 의신, 덕평, 세석 등지에 외지의 주민들이 전입하여 청학동 마을을 이루면서 풍수·도참의 명당길지라는 장소이미지로 쇠퇴되었다. 다시 현대에 와서는 하동면 청암면 목계에 마을을 형성한 경쟁유도인들이 매스미디어에 의해 알려지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정책에 의해 관광지 개발이 촉진되면서 마케팅장소가 되었다. 이와 같은 청학동의 장소정체성과 그 변이에 관한 흥미로운 주제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주

- 1)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天地篇, 地理類, 洞府「青鶴洞辨證說」“青鶴洞不過東方一小洞壑 而有名於天下 如清聖祖 淵鑑類函 載朝鮮智異山中有青鶴洞…蓋我邦以仙境名者甚多 而青鶴洞獨名於寰宇”
- 2)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天地篇, 地理類, 洞府「青鶴洞辨證說」“青鶴洞…至于我朝 始得開山露見 膾炙一世 無人不知 而無人不見者”
- 3) 문학 분야에서 유토피아 의식에 관한 연구는 이종은 등(1996)의 글에서 집성되었다.
- 4) 신정엽(1993)에 의하면, “서양의 유토피아 유형을 기독교의 전통 하에 분류하면, 그 하나는 자연주의, 자급자족, 농업중심, 회귀적 성격의 에덴식 유토피아이다. 또 하나는 기하학적이고 계획적이며 재건적이고 창조적인 뉴에루살렘(New

- Jerusalem)식 유토피아이다.”라고 하였다.
- 5) 정지영(2005, 75)은 조선시대 유토피아의 지형적 특성을 산형과 해도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 6)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天地篇, 地理類, 洞府「牛腹洞辨證說」“… 則洞在三道交界中 以爲界於嶺南向州牧 湖西清州牧 又界於嶺南開慶縣 湖西延豐縣 故有三道峯 以報恩郡俗離山天王峯爲主山 洞名牛腹”
- 7)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天地篇, 地理類, 洞府. “又有牛腹洞 俗云在尙州 清州 報恩接界 霞斂地在江陵地 鏡城有南北羅乃洞 茂山有女眞洞 關東淮陽金剛山中有梨花洞 關西成川有檜山洞 異境 古寧遠有石龍窟 海西山谷有鳥音洞 關東襄陽有回龍窟 江陵有所隱棲伊山洞 皆深僻世所不知者云 德原有馬間峙 有北二池云 此皆如古之青鶴洞”
- 8) 이화동은 『靑邱野談』「洪斯文東岳遊別界」, 산도동은 『靑邱野談』「訪桃園權生尋眞」, 태평동은 趙汝籍의 『靑鶴集』, 오복동은 손진태(1954), 불곡은 『避藏處』, 회룡굴은 『靑邱野談』「吳按使永湖逢薛生」에 나온다(출처: 이종은 등, 1996, 7-226).
- 9) 율도국은 許筠의 『洪吉童傳』, 무인공도는 『許生傳』, 단구는 『靑邱野談』「識丹邱劉郎漂海」, 의도는 이우성·임형택 편역, 1983, 『李朝漢文短篇集』 상, 일조각, 337-339에 나온다(출처: 이종은 등, 1996, 7-226).
- 10) 『禮記』「禮運」
- 11) 한국의 불교사상사에서 나타난 불국경도 관념의 지향은 ‘穢土를 淨土로, 彼岸을 此岸으로, 來世를 當世로, 往生을 現身으로’ 라고 요약할 수 있다. 신라 왕실들은 불교의 우주공간을 경주에 상징적으로 대응시켜 一體化하고자 했는데, 낭산=수미산, 도리천=낭산 폭대기(선덕왕릉지), 사왕천=낭산 중턱(사천왕사지)로 일체화시켰으니 당시 왕실은 불국경도의 공간모델을 가지고 경주의 땅에 적용시켰음을 알 수 있다(최원석, 2004, 82-89).
- 12) 황원구(1982)
- 13) 丁若鏞, 薇澗隱士歌, 與猶堂全書 제1집 4권.
- 14) 이성규(역), 1990
- 15) 『山海經』의 「大荒西經」에 등장하는 이상향이다.
- 16) 각각 『山海經』의 「海東北經」과 「海東東經」에 나오는 이상향이다.
- 17)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天地篇, 地理類, 洞府「青鶴洞辨證說」“海東形勢險阻 山盤水廻 無非羊腸鳥道 故間多洞天福地 如中原武陵桃源…不可一二道也”
- 18) 이종환의 『擇里志』에는 可居地의 여섯 가지 지리적 요건(水口·野勢·山形·土色·水理·祖山朝水)을 제시한 바, 풍수적 이상적 지형 형국에 관한 이론이 대폭 반영되어 있다.
- 19) ‘유사의 법칙(Law of Similarity)’은 Frazer(1854-1941)가

- 그의 저술인 『황금가지(The Golden Bough, A Study in Magic and Religion)』에서 분석한 呪術의 기초가 되는 사 고원리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유사의 법칙이란 ‘낮은 것은 낮은 것을 낳는다’는 사유방식이다.
- 20) 『破閑集』
  - 21) 신빙성 있는 문헌으로 근거를 밝히기는 어려우나, 삼국시대 이후로 지리산은 南方仙脈의 본향으로서 동방의 仙脈이 전개되던 곳이라는 설도 있다(안동준 2007, 138-139).
  - 22) 金駟孫의 『頭流紀行錄』(15세기)에는 최치원이 청학동에서 영생불사 한다는 구전을 기록하고 있다.
  - 23) 『遊頭流錄』(金宗直, 續東文選 第 21卷 錄, 한국고전번역원).
  - 24) 李重煥은 『택리지』에서, “청학동은 지금의 梅溪로서 근래에 비로소 조금씩 인적이 통한다.”고 하였으며, 李肯翊(1736-1806)은 『연려실기술』에서 하동군 악양면의 梅溪를 청학동이라고 지적하였다. 매계는 현 행정구역으로 하동군 악양면 매계리인데, 매계리 북쪽의 등촌리에 청학이골이라는 지명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공간적 범위는 매계리와 등촌리를 포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25) 『大東地志』河東 山水 “梅溪古名青鶴洞 青鶴洞今稱梅溪 東距晉州一百四十七里”
  - 26) 제보(2009.5.5): 유한상씨(하동군 악양면 매계리 588번지)
  - 27) 『세조실록』 2년 11월 20일
  - 28)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天地篇, 地理類, 洞府 「青鶴洞辨證說」 “青鶴洞又在京師城中南村筆洞最深處 中出一澗 卽木覓山麓也 旁有禁衛營火藥庫”
  - 29) 『대동지지』 한성부 “引慶山一云木覓山 高句麗時移平壤所在 木覓之號俗稱南山 南帶漢水 有千仞層壁起爲巖頭山 北舊有青鶴洞馳駘路山 高麗稱大峯東有安岩洞”.  
참고로 『별건곤』 제23호(1929년 09월 27일)의 『碧海桑田』가 티 激變한 서울의 옛날집과 지금집이라는 기사에 의하면 “青鶴洞은 南山麓 舊總督府官邸下 지금 소위 櫻谷이라 하는 곳이니 中宗朝 大提學으로 輿地勝覽增補에 有功한 容齋李荇先生의 遺址요”라는 표현이 있어 참고 된다.
  - 30) 『承政院日記』 제690책, 영조 5년 윤7월 16일(무자). “...自昨年變亂之後 亡命之流 率多投入 彌滿於智異德裕等山谷間...”  
『承政院日記』 제1577책, 정조 9년 2월 29일(기유). “昨年騷說狼藉 大小流民 奔避於智異山下者甚多”
  - 31) 정운균씨(79세, 하동군 대성리 의신 1370)의 제보(2009.5.5)에 의하면, 제보자의 8대조(정명일)가 함양 교사리에서 피난을 위해 의신으로 입향하였으며, 의신은 일제말엽에 123호나 되는 큰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의신은 임진왜란 때 開基하였다고 전하나 17-18세기에 걸쳐 지리산지로 인구유입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촌락이

-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정치영, 2006,312).
- 32) 정운균씨(79세, 하동군 대성리 의신 1370)의 제보(2009.5.5)에 의하면, 덕평에 일제시기 까지만 해도 10여 호의 가옥들이 남아 있었으며, 비결파들이 거주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거주민들은 덕평이 청학동임을 믿고 이주한 집단으로 추정된다. 한편, 『화개면지』(2002, 347-347)에 의하면, “지리산에 몇 안 되는 고산지로 넓은 평전이다. 논은 없지만 화전을 일구었던 넓은 밭이 있어 일제 때까지는 30가구 정도가 살았었다. 선비샘 아래에 상덕평과 하덕평이 있고, 지금도 天羽洞이라는 刻字가 남아 있어 이곳이 청학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예부터 있었다.”고 한다.
  - 33) 1909년에 遊山하고 기록한 遊頭流錄(鄭鍾輝, 修堂集 권4)에 의하면(1909), “세상 사람들이 청암면 학동을 일컬어 청학동이라고 하고, 거주하는 사람들은 각자 멀리서부터 와서 취락을 이루었다(世人以靑巖面鶴洞謂之靑鶴洞 居人則各自遠來成聚)”라고 하였다.
  - 34) 『承政院日記』 제690책, 영조 5년 윤7월 16일(무자). “...自昨年變亂之後 亡命之流 率多投入 彌滿於智異德裕等山谷間...”
  - 35) 『承政院日記』 제1577책, 정조 9년 2월 29일(기유). “昨年騷說狼藉 大小流民 奔避於智異山下者甚多”
  - 36)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天地篇, 地理類, 洞府 「青鶴洞辨證說」
  - 37) 『해동지도』 영평현 도엽에 靑鶴洞이 표시되었으며, 『대동지지』 영평현 산수조에서도 “靑鶴臺卽錦珠山下, 靑鶴洞有白石清泉石壁嵯峨”라고 기록하였다.
  - 38) 『해동지도』 적성현 도엽 하단에 부기된 산천조에 의하면 “청학동은 설마령 아래에 있다(靑鶴洞在雪馬嶺下)고 적었다. 한편, 『대동지지』 산수조에서도 “雪馬峙南十五里楊州路下有靑鶴洞”이라는 정보를 표기하였다.
  - 39) 『대동지지』 강릉 “靑鶴洞上下十餘里兩崖巖絕淵水沈墨若巨瓮蓄黛沸成層湍”
  - 40)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天地篇, 地理類, 洞府 「青鶴洞辨證說」 “大抵靑鶴洞 自麗代已有名焉 然終無至焉者 至于我朝 始得開山露見 膾炙一世 無人不知而無人不見者”
  - 41) 45곳의 청학동 지명 중에는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해 단순히 기존 지명의 첫 글자를 조합하여 청학동이라는 이름이 생긴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지명으로 인해 청학동 이상향의 상징성도 부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42) 자료 출처와 발간년도는 다음과 같다. 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 1966-1986), 조선향토대백과(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북한)·한국평화문제연구소 공편, 2003), 남영우 편저(1996), 해동지도(18세기 중반), 동여도(19세기 중반)
  - 43) 최초의 비정지인 불일폭포 부근과 인근의 악양면 매계, 그리고 청암면 목계는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있으며 동일한

산줄기로 서로 연결되는 서쪽, 동쪽, 남쪽 기슭에 분포한다.

### 참고문헌

東國山水錄, 李重煥, 서울대 규장각.  
 頭流記行錄, 金駟孫, 瀾縵文集  
 頭流山記, 宋秉璿, 淵齋集 권21, 국립중앙도서관.  
 頭流山遊錄, 金澤述, 後滄集 卷17  
 方丈山遊行記, 鄭德永, 韋堂遺稿 卷4  
 別乾坤 23, 1929년 09월 27일, 한국역사정보종합시스템.  
 承政院日記., 서울대 규장각.  
 練藜室記述, 李肯翊, 朝鮮光文會(1912).  
 五洲衍文長箋散稿, 李圭景, 古典刊行會(1959)  
 與猶堂全書, 丁若鏞, 한국문집총간, 민족문화추진회(2005)  
 遊頭流錄, 南冥先生集 卷之二, 경상대학교 문천각.  
 遊頭流錄, 金宗直, 續東文選 第21卷 錄, 한국고전번역원.  
 遊頭流錄, 鄭鐘燁, 修堂集 권4, 국립중앙도서관(1968).  
 遊方丈山記, 鄭琦, 栗溪集 권14, 국립중앙도서관 22권 13책.  
 朝鮮王朝實錄, 서울대 규장각.  
 智異山靑鶴洞記, 記言 卷28 原集 下篇, 山川, 한국고전번역원.  
 破閑集, 李仁老, 朝鮮古書刊行會(1911)  
 大東地志, 金正浩, 한양대학교부설 국학연구원 대제각 (1974)  
 左海地圖, 서울대 규장각, 圭 12229.  
 東輿圖, 金正浩, 서울대 규장각.  
 八道地圖, 서울대 규장각, 古 4709-14.  
 八道地圖, 서울대 규장각, 古軸 4709-48.  
 海東地圖, 서울대 규장각 영인본.  
 조선후기 지방지도(1872년 군현지도), 서울대 규장각 영인본.  
 강정화 · 황의열 · 구경아 편저, 2008, 지리산 유산기 선집,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자료총서 02, 브레인, 창원.  
 남영우 편저, 구한말한반도지형도, 성지문화사영인본 (1996).  
 손진태, 1954,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신정엽, 1993, "유토피아의 지리학—그 가능성의 탐색," 지

리교육논집, 30(1), 92-114.  
 안동준, 2007, "지리산의 민간도교 사상," 경남문화연구, 28, 135-148.  
 오세창, 1984, "풍기읍의 정감록촌 형성과 이식산업에 관한 연구," 지리학과 지리교육, 9(1), 166-185.  
 이성규(역), 1990, 중국의 유토피아 사상, 지식산업사, 서울 (陳正炎·林其鏞).  
 이익성(역), 1993, 택리지, 을유문화사, 서울(이중환, 1751, 擇里志).  
 이종은·윤석산·정민·정재서·박영호·김응환, 1996, "한국문학에 나타난 유토피아 의식 연구," 한국학논집, 28(1), 7-226.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한국평화문제연구소 공편, 2003, 조선향토대백과, 서울.  
 진종현, 2005, "지리산 읽기: 유토피아적 도피처에서 근대적 국립공원으로의 변형," 대한지리학회지, 40(2), 172-186.  
 정치영, 2005, "조선시대 유토피아의 양상과 그 지리적 특성," 문화역사지리, 17(1), 66-83.  
 정치영, 2006, 지리산지 농업과 촌락 연구, 고대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총서, 서울.  
 최병두, 2000, "유토피아 공간의 변증법 -사회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문예미학, 7(1), 733-58.  
 최영준, 1997, 국토와 민족생활사, 한길사, 서울.  
 최원석, 2004, 한국의 풍수와 비보, 민속원, 서울.  
 최창조, 1990,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서해문집, 서울.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66-1986, 보진재, 서울.  
 화개면지편찬위원회, 2002, 화개면지, 화개면.  
 황원구, 1982, "한국에서의 유토피아의 한 시도-板尾洞故事의 연구-", 동방학지, 32, 59-96.  
 Frazer, J. G., 1971, *The Golden Bough, A Study in Magic and Religion*, Macmillan.  
 Porter, P. W. and Lukermann, F. E., 1976, *The Geography of Utopia, Geographies of the Mind*, Oxford University Press, 197-224.  
<http://www.itkc.or.kr>  
<http://www.atlaskorea.org/historymap/IdxRoot.do>  
 교신 : 최원석, 660-701,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관 305호(이메일: wschoe@empal.com, 전화: 055-751-5177)

최원석

Correspondence: Wonsuk Choi, 305, Nam-myeong Hak  
Gwan, Gyeongsang National Univ., Gajwa-dong,  
Jinju-si, Gyeongsangnam-do, 660-701, Korea(e-mail:  
wschoe@empal.com, phone: +82-55-751-5177)

최초투고일 09. 09. 30  
수정일 09. 11. 03  
최종접수일 09. 11. 23